

Risk off 완화, 중화권 증시 강세

한국투자증권 이머징마켓팀 ☎ 02-3276-6274

友 아시아 EM 마켓

시장 동향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3,172p 로 강보합 마감하며 5 거래일만에 강세로 전환했다. 보합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등락이 반복했다. 거래대금은 2,201 억위안으로 직전일대비 소폭 줄었다. 최근 금융 규제에 따른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블루칩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 국무원에서 감세 정책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됐다. 또한 외환 관리국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입 영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추진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융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한편 최근 급락하던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강세로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양조, 공정건설, 조선, 헬스케어, 방위, 음식료,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강세를 보였고, 시멘트, 석유화학, 귀금속 업종은 하락했다. 한편 차스닥 지수는 0.3% 상승한 1,850p 로 마감했고, 외국인들은 상해와 심천 주식을 모두 순매수했다.
- 홍콩 시장** 홍콩H 지수는 0.7% 상승한 10,056p 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10,000 선을 회복했다. 강세로 출발한 증시는 마감직전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휴 이후 급락했던 증시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과 본토자금이 2 거래일간의 순유출세를 마치고 순유입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에 따른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이 악재로 작용하며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했다. 업종별로는 산업재, 통신, 금융 등이 상승했다.
- 인도 시장** 센섹스지수는 0.3% 상승한 29,422p 로 마감했다. 그 동안 어닝시즌에 대한 경계감에 하락세를 보였던 IT 관련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글로벌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인도 증시는 2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2% 하락한 5,595p 로 마감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인 푸르나마가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인도네시아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 베트남 시장** VN 지수는 0.6% 하락한 713p 로 마감했다. 실적 우려로 철강주와 보험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매물증가로 은행, 소프트웨어, 유제품 관련주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반발 매수세 유입, 신규 프로젝트 수주 소식으로 농업, 부동산 관련주가 상승했다. 외국인은 연속 순매수세를 유지했고 매매가 금융, 농수산물, 소비재, 건축자재 업종에 집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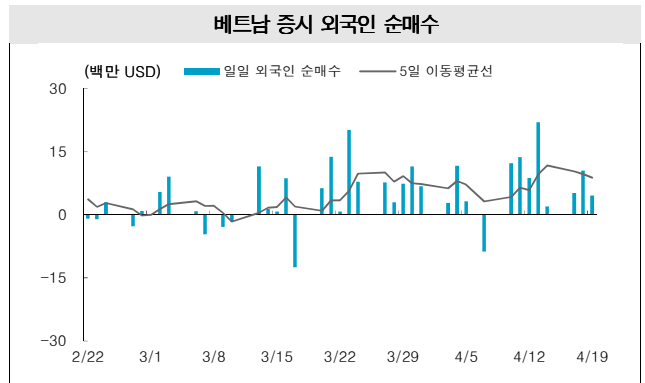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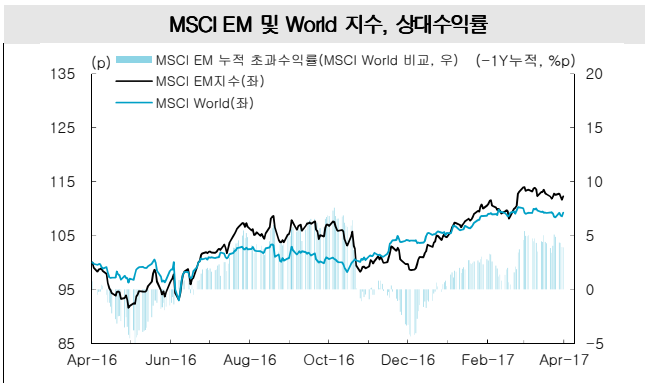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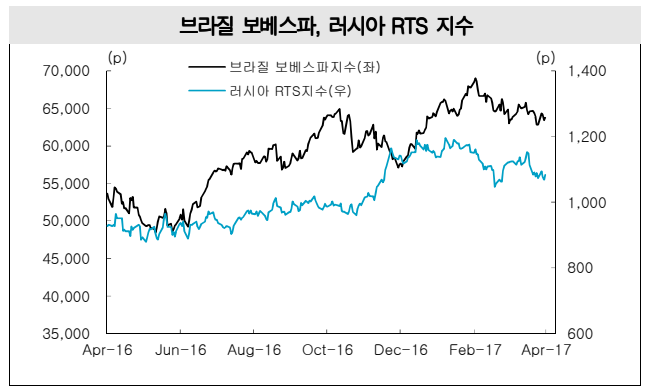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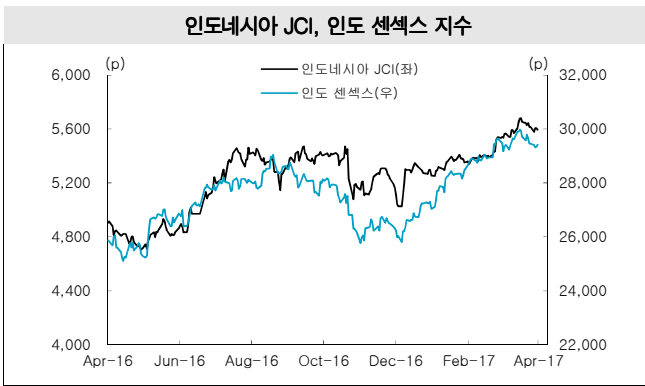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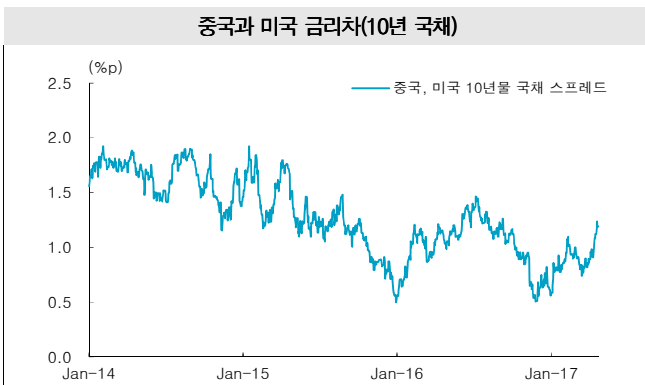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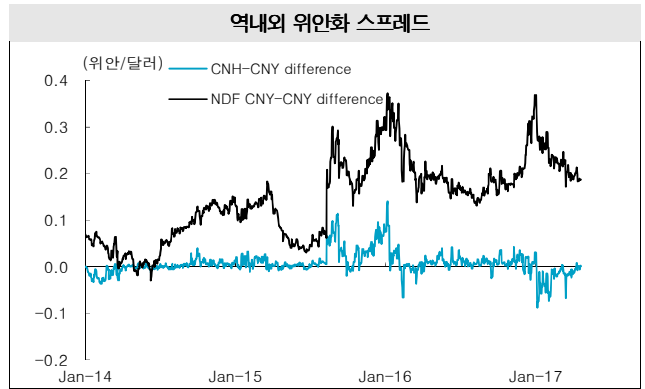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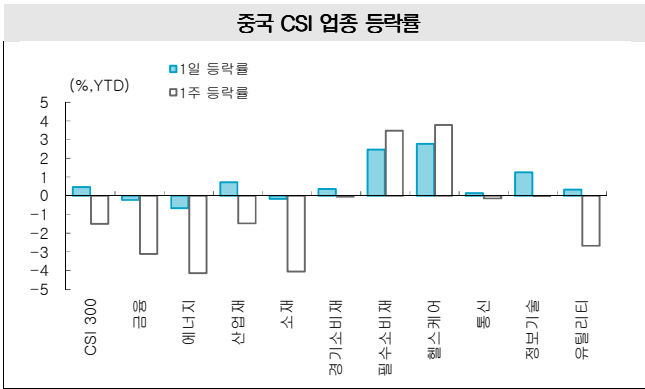
友 주요 이머징마켓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분	4/20(목)	전일대비(%)	전년말대비(%)	구분	4/20(목)	전일대비(%)	전년말대비(%)
중국 상해종합	3,172	0.0	2.2	MSCI 이머징마켓	958	0.6	11.15
중국 심천종합	1,929	-0.2	-2.0	MSCI 선진국	1,847	0.6	5.45
CSI 300	3,462	0.5	4.6	S&P500	2,356	0.8	5.23
차이넥스트	1,850	0.3	-5.7	KOSPI	2,149	0.5	6.05
홍콩 H	10,056	0.7	7.0	위안/달러 환율	6.88	0.10	-0.96
인도 SENSEX	29,422	0.3	10.5	JP 모건 EM 통화지수	68.4	-0.26	3.61
러시아 RTS	1,083	1.4	-6.0	달러인덱스	99.8	0.07	-2.35
브라질 보베스파	63,761	0.6	5.9	인도 국채금리(5Y)	6.83	0.01	-1.86
인도네시아 JCI	5,595	-0.2	5.6	브라질 국채금리(5Y)	10.16	-0.02	-2.67
베트남 VN	713	-0.6	7.2	EMBI+ 스프레드	335.6	-0.71	-7.59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출처: Bloomberg